빌리엔젤, 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디저트 케이크 선두기업… 2018년 하반기 생산 공장 착공… 중국·동남아 시장 진출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지원센터장 최희종)는 지난 17일 디저트케익 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인 '빌리엔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체결 기업은 현재까지 총 44개 기업으로 증가했고, 16개社가 착공하여 이중 8개社가 준공을 완료했다.

2012년 설립된 '빌리엔젤'은 케익, 쿠키, 마카롱 등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디저트 카페 가맹점을 보유, 디저트 케이크 분야에서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빌리엔젤은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확보한 6,505㎡(약 2천평)의 부지에 2018년 하반기 생산 공장을 착공하여 현재 군포에 있는 생산라인을 이전 자동화생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지원하는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20~30대 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희종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장은 "최근 베이커리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입주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시너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인프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6~7세기 백제사에서 익산의 위상' 학술회의 22일 개최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6시까지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 '6~7세기 백제사에서의 익산의 위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역 소재 백제 문화유산의 관심 제고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가치와 우수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으로 백제왕도로서 익산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학술회의는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백제 수막새의 기초적 검토(이병호), 왕궁리유적에서 보이는 6~7세기 대외교류의 성격(전용호), 6~7세기 백제왕도 사찰건축의 성격(조은경), 동아시아 불교 조각사에서 본 연동리 석불좌상의 위치(임석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반려견 물림사고예방 홍보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풀림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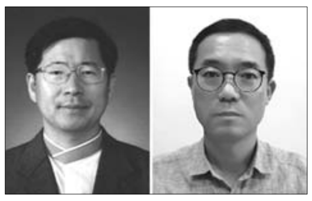
이는 최근 최근 반려견 목줄 풀림으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이나 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발생이 늘어 112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자, 공원 및 애견카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하도록 홍보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박광수·임병학 교수 '근·현대 민중중심 제천의례 역사적 전개·특성 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2017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돼 연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원광대는 종교문제연구소장인 박광수(사진왼쪽 원불교학과) 교수와 동양학대학원 임병학(사진오른쪽 동양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 근·현대 민중중심 제천의례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임병학 교수)'가 전문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구과제는 민중중심 제천의례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을 위한 연구로서 기초사료연구를 바탕으로 제천의례가 행해졌던 곳에 대한 현지답사와 조사연구를 비롯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천의례에 대한 종교인류학적 참여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시월제(十月祭), 백제의 교천(郊天), 고려의 팔관회(八關會) 등 한국사에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됐던 제천의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종합하고, 한국 근대 역사의 변동과 함께 일어난 민중중심의 제천의례를 통해 비교종교학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한국의 정신문화 계승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전승하기 위해 민중 중심의 제천의례가 전국 곳곳에서 행해졌지만, 사료집이나 연구서가 체계적으로 간행된 적이 없어 이번 과제를 통해 제천의례 전문 연구자들이 관련 주제별 연구에 공동 참여하고, 상세한 지역별 조사연구보고서를 구축해 3차례의 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취업박람회' 23일 개최 군산대 종합체육관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7 군산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

'군산취업박람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채용관, 컨설팅관 등 총 60여개의 부스와 구인기업, 구직자 등 1,500명 규모로 치러지며 도내 40여개의 유망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별 취업 채용관에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간 일대일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과 일반구직자들에게 기업정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6년 군산 취업박람회에서는 채용현장에 38개 기업, 온라인에 67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94명의 인원을 신규로 채용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상수도 동파 주의 당부

군산시는 동절기 기상한파에 따른 해마다 반복되는 수도미터(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수도미터 동파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동파 주의에 대한 당부에 나섰다.

수도미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도미터와 노출된 수도관을 스티로폼이나 보온재 등으로 얼지 않도록 감싸야 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출입문과 창문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해 수도미터가 동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 수도사업소는 긴급복구반과 상황반을 편성해 수도미터 동파 발생 신고 접수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미터가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며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온도 차로 인해 파열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소룡동, 미니배너 이색홍보'

맞춤형복지 홍보·직원청렴과 친절서비스 'UP' 위해

군산시 소룡동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홍보와 직원들 청렴 및 친절 서비스를 'UP'시키기 위해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미니배너를 제작, 설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동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의 장으로 다가가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현판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명칭을 바꾼 지 1년이 지난 지금 행정복지센터(일명 행복센터)의 주요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미니배너를 활용한 이색홍보에 나섰다.

미니배너는 ▲찾아가는 소룡동 복지센터 홍보 ▲동 직원의 청렴 및 친절서비스 실천 다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에서는 이러한 미니배너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대,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학생 공모전 동상

나지영·이주희·소윤정 '슈슈이슈' 팀… 카드뉴스 주제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학부 학생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7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학생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최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역신문 컨퍼런스 10년, 혁신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원광대 학생들은 기획 세션 '미래기자의 눈' 대학생 공모전 본선에 오른 다른 팀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신문방송학 전공 2학년 나지영, 이주희, 소윤정 학생 등 3명으로 구성된 '슈슈이슈' 팀은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발전 카드뉴스를 주제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여러 개의 신문 기사 중 전북 어린이 관련 기사만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정확한 기사를 신속하게 SNS를 통해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디어를 내 깔끔하고 세련되게 발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광대 행정·언론학부는 이 공모전에서 2016년 '뉴스타그램' 팀이 은상을 수상한데 이 올해까지 2년 연속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익산=장양원 기자